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세금 자동 납입 10배 최고
 *100만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
 인내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을 지탱하는 주부들이 흔들리고 있다. 아무리 일부의 타락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머니' '아내'가 도박과 잘못된 성유회에 빠져 들었다는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굳이 불지5계의 '불사유(不邪淫)' 계율을 거론치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텃밭이며, 2세를 양육하는 주부가 병들었다는 것은 사회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돈과 쾌락의 탐욕에서 비롯된 주부타락을 우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욕망은 애착에 의해서 생겨서 가지 위함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그 이기더라도 마음을 사게 되고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고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 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 되며, 친구나 관청으로 부터 압박을 받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사갈로바디 수티타)

욕망은 마치 물결과 같고 번개와 같고 등불 같나니, 여자를 욕심낸 은 독과 같아서 소용돌이 속에 든 고기와 같다. (정법염처경)

남들이 온갖 것에 대하여 취하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후세에 마음 속이 편안하여서 마침내 잃어버린 근심이 없으리. (분별선악소기경)

욕심은 풀이나 같이나 독이므로 쾌락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온갖 욕심은 마치 불이 맹렬히 타는 것 같다. (정법염처경)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는 것. 마치 물거품, 허깨비, 야생마, 물 속에 비친 달 그리고 친구를 같다. (화엄경)

욕망은 애착에 의해서 생겨서 가지 위함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그 이기더라도 마음을 사게 되고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고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 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 되며, 친구나 관청으로 부터 압박을 받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사갈로바디 수티타)

욕망은 마치 물결과 같고 번개와 같고 등불 같나니, 여자를 욕심낸 은 독과 같아서 소용돌이 속에 든 고기와 같다. (정법염처경)

남들이 온갖 것에 대하여 취하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후세에 마음 속이 편안하여서 마침내 잃어버린 근심이 없으리. (분별선악소기경)

욕심은 풀이나 같이나 독이므로 쾌락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온갖 욕심은 마치 불이 맹렬히 타는 것 같다. (정법염처경)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는 것. 마치 물거품, 허깨비, 야생마, 물 속에 비친 달 그리고 친구를 같다. (화엄경)

욕망은 애착에 의해서 생겨서 가지 위함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그 이기더라도 마음을 사게 되고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고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 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 되며, 친구나 관청으로 부터 압박을 받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되느니라. (사갈로바디 수티타)

욕망은 마치 물결과 같고 번개와 같고 등불 같나니, 여자를 욕심낸 은 독과 같아서 소용돌이 속에 든 고기와 같다. (정법염처경)

남들이 온갖 것에 대하여 취하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후세에 마음 속이 편안하여서 마침내 잃어버린 근심이 없으리. (분별선악소기경)

욕심은 풀이나 같이나 독이므로 쾌락을 구해서는 안 된다. 온갖 욕심은 마치 불이 맹렬히 타는 것 같다. (정법염처경)

'고령화시대' 노인포교 나서자

교계 복지시설 불과 17곳... 사찰마다 노인프로 개발 절실

핵가족화 영향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노인 복지·의료시설 및 포교프로그램이 취약해 노인층에 대한 포교대책 마련과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심지어 단위 사찰에서의 노인대상 상설 포교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해 노인포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통계청이 실시한 '95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49만12천가구에 5만3천778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반해 노인정용 불교복지시설은 관음대비원 보리수마을 통도사지비원 등 전국에 불과 17개소 뿐으로 파악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복지시설 141개(95년 보건복지부 기준)의 약 12.1%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기독교 83개소, 천주교 23개소와 견준다면 노인포교에 대한 교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노인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센터를 갖추고 있는 복지관 및 노인대학, 각 사찰단위의 노인정용 불교복지시설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광명의원 등을 합하면 그 수는 조금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노인시설은 대

부분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폭넓은 서비스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노인복지에 대한 경향부족과 운영상의 미흡 등은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단위 사찰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여가 프로그램 상설화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불교복지전문가들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중단 및 각 지역사회, 불자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도필선 기자)

그렇다면 노인정용 불교복지시설은 관음대비원 보리수마을 통도사지비원 등 전국에 불과 17개소 뿐으로 파악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복지시설 141개(95년 보건복지부 기준)의 약 12.1%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기독교 83개소, 천주교 23개소와 견준다면 노인포교에 대한 교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노인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복지시설 중 재가노인센터를 갖추고 있는 복지관 및 노인대학, 각 사찰단위의 노인정용 불교복지시설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광명의원 등을 합하면 그 수는 조금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노인시설은 대

부분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폭넓은 서비스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노인복지에 대한 경향부족과 운영상의 미흡 등은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단위 사찰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여가 프로그램 상설화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불교복지전문가들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중단 및 각 지역사회, 불자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도필선 기자)



그룩한 미소 '세계인 찬탄' 매들랜드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하이미술관 '월드(고리)룸'에 선보인 금동미륵반가상(국보 제83호). 법월에 잠긴듯한 그룩한 미소에 관람객들은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태고·천태종등 21개종단 '불교종단진흥회' 발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소속 28개 종단중 태고, 천태종 등 21개 종단이 조계종을 배제한 '대한불교종단진흥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한불교종단진흥회는 지난 12일 진각종 총무원에서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조계종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회장에 배임공인 윤종 총무원장을 사무총장에 전남정 총화종 총무원장을 임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불교의 균형있는 발전과 화합을 도모기위해 대한불교종단진흥회를 중심으로 조계종 일변도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체질개선이 절실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친목도모를 표면에 내세운 종단진흥회의 결성배경은 지

종단협 흔들린다

조계종 견제... 친목 내세우나 결별우려
 5월 태고종, 6월 천태종, 7월 진각종이 '조계종 이외의 종단은 소외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잇따라 가입, 본격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종단협 구성에서부터 당연직 회장등 조계종이 사안 5명, 부회장이 2명, 사무총장에 임명하려는 움직임까지 알려져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종단진흥회측은 종단협 운영과 정부의 불교 총무행정도 조계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단협의회운영이 각종단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행사 때마다 조계종 생색내기에 치중했다고 제시했다. 종단진흥회 한 관계자는 '조계종의 1개 하급부처처럼 운영

데생응 미륵반가상 종교교에 보냅니다

동참해주신 분
 △영달 석왕사주지: (5구좌) △철한 금강반야원장: 대전 보문고(2구좌) △정환 신사주지: 여수 문수종합복지관(1구좌) △정인 보덕사주지: 담양여고(1구좌) △도일 보현스님: (1구좌) (7월25일 현재 총 379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서판 부대표이
 조계종-공원공단 분리징수 논란 15면
 '폭물염색' 첫 사찰강좌 13면
 큰스님 생활법문책 인기 12면
 올림픽 금메달 '모정불심' 16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국민회의 불자모임인 '세연동화'가 창립된다. 박상규 추미애 조성준의원 등은 지난 9일 준비모임을 갖고 8월중 창립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현재 이 모임에는 12명의 담소속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 40여명이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립준비위원회는 김대중총재와 함께 31일 해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다음주 휴간 89호 8월14일자로 발간

원바디를 기억하십니까?

30年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一洋藥品の 원바디가 創業 50周年을 맞아
 1996年7月1일부터 470원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원바디의 앞날에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원바디
 GINSENG & VITAMINS
 WONBI-D
 1일1회 1~2회

효능·효과:
 피로회복,간기능
 보조 및 개선
 용법·용량
 1일1회 1~2회

일양약품 醫藥品